

목장교회 나눔지

2020. 03. 15. 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5분)

* 세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 나누어 보세요.

1. 우리교회가 추구하는 목장교회의 핵심 슬로건은 무엇인가?
2.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시몬이 속한 유대교 종파는?
3.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의 하루 품 값이다.

장 장맛비 같은 찬양(15분)

특 음 성 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지99장)	찬 송 가	내가 예수 믿고서(새찬421장)
	오직 주의 은혜로(지478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새찬214장)
	주 앞에 나와(지303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새찬250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지12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새찬365장)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5분)

지난 한 주간 QT(매일성경, 새벽예배)를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예배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3) 예배 - 죄 사함에 대한 반응 누가복음 7:36-50

1 핍박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부재했던 것 같은 아이러니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앙에서는 정답이었고, 영적 돌파구였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은 지구촌교회가 추구하는 목장교회의 핵심 슬로건이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모여 드릴 공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2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오는 목적, 특히 예배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는 두 예배자가 등장한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다. 시몬은 예수님 같은 유명 인사를 초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3 그런데 이런 잔치의 한 복판에 두 번째 예배자인 한 여인이 등장한다. 성경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밝힌다(37).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38). 예수님께 최대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이 여인 외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목
장
내
용

4 당시 유대의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다(39). 예수님은 시몬에게 빛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40-42), 오백 데나리온과 오십 데나리온의 빛을 진 두 사람의 빛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주인을 기뻐하겠는가 [더 사랑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 받은 자라고 답변했다.

5 시몬은 자기 과시로서 예수님을 초대 했을 뿐 예수님께 어떤 친절이나 사랑의 표현도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44-46). 시몬은 그저 자기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 했다. 반면에 여인은 비유 속에 등장한 오백 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처럼,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강렬하게 그 감사를 표현했다(47).

6 이 여인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배 - 죄 용서함에 대한 자유함이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 되어지는 반응]

1. 죄 사함의 결과로 자유함이 넘쳤다.
2. 죄 사함의 결과로 감사가 넘쳤다.
3. 죄 사함의 결과로 사랑이 넘쳤다.

7 [탕감하여]에 해당하는 [카리조마이]는 [카리스(은혜)]라는 말에서 나왔다. 즉 [탕감]은 [자비롭게 은혜로 주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나의 죄가 탕감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배는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48-50).

8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함에 대한 반응에 있음을 잊지 말자.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많이 모여 예배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시몬의 초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나
래
질
문

1. 가족과 함께 드린 온라인 예배가 준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2. 두 예배자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예배자로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3.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인이 흘린 양만큼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4. 설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마디는?

회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도록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한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 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동 기도제목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공동기도제목은 주보 참고/중보기도부장이 마무리기도).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장이 선택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목장교회사역 | 비전부장, 중보기도부장, 전도부장, 선교부장, 사회봉사부장, 교육부장, 기타

North Korea

기도제목	1. 코로나19의 전 세계 감염과 확산이 멈춰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을지 모를 확진자들이 은폐되지 않고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사역안내	

Next Generation

기도제목	1. 젊은이지구 대학, 청년 그리고 교육목장 어린이와 학생들이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와 '주중 SNS 목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안내	1. 젊은이지구 「주중 파웬 온라인 예배 안내」 및 「주중 SNS 목양사역」 - 일정: 3/17(화)-21(토)

New Family

기도제목	1. 코로나로부터 아름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드러지는 아름 영상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도록
사역안내	1. 아름학교 차량 봉사자 모집(경기 광주) - 일시 및 장소 : 매월 1회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 문의: 사회복지부 아름학교(031-710-9312)

Great Commission

기도제목	1.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유가 순적하게 이루어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가정과 사역이 보호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역안내	

Global Church

기도제목	1.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외국인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사역안내	

Godly Leaders

기도제목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품고, 하나되는 지구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역안내	1. 새공동체(1일) - 4/4(토) 오전 9시 - 오후 5시, 분당 804호

※ 기타 행사 및 사역 안내

1. 코로나19 예방대책 안내

-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요청에 협조하고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금주(3/15)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는 지구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인터넷영상)예배로 드립니다(현장예배 없음). 예배 10분전부터 영상화면 속 예배 안내에 따라,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8시, 10시, 12시, 2시, 4시: 총 5회).

*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특별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코로나19 특별헌금: 우리은행 1005-002-643051(지구촌교회)(식별기호 기입)

일반(십일조/감사헌금): 우리은행 398-170814-13-001(지구촌교회)(식별기호 기입)

2. 장년목장 상반기 목자훈련모임 개강

- 수요일 및 토요일 목자훈련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어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장례상담 전화번호 변경

- 3/29(주일)부터 교회 장례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가 050-5800-0179에서 010-7484-0179로 변경됩니다.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합니다.

[사역메모]